

일주 문



안양교도소서 설맞이 행사
안양교도소불교종교위원회 회장 현성 스님은 2월 7일 안양교도소 재소자 3000여명과 전직원에게 떡국대중공양을 베풀고 합동차례를 봉행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은 2월 22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02)466-6242



사찰문화연구원에 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은 2월 12일 사찰문화연구원(대표 신대현)에 '전통사찰총서' 보완 발간 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양국따라니까야 원간 봉정식
한국배아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은 2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양국따라니까야 원간 봉정식 및 기념제니카를 개최한다.(02)2631-0381

법계장학금 수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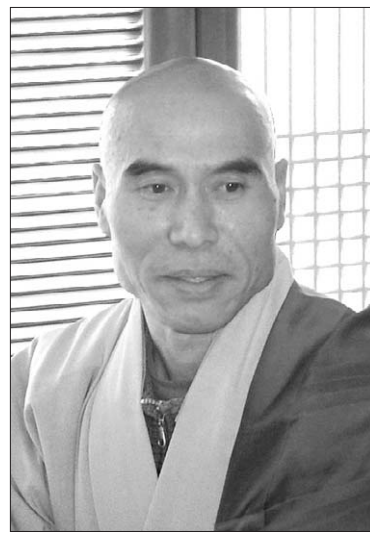
운문사서 수여식
현의 스님 외 5명

제6회 법계장학회 수상자에는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현의(선학·불교미술) 도은(불교학과) 스님과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설해 스님을 비롯해 일본 하나조노대학 대학원 원영 스님, 중국 칭화대학교 대학원 법정 스님, 미국 뉴욕주립대학 윤희주씨 등 총 6명이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의 변호를 따 설립된 명법계장학회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학업선정이 우수한 불자를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순법전 대구지사장

“전방위적인 복지포교 위해 최선 다할 터”

신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우르는 전방위적인 복지 포교에 전력을 다하겠다. 대중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갖춰 부처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임명장 전달식을 열고 대오 스님(교양 흥국사 주지)을 신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에 임명했다.

대오 스님은 “평소 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자원 봉사 모임인 천수천안 활동을 해보니 교계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소신을 밝혔다.

스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가 중요하다. 교계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고령화돼 가는 사회에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 등 연령별 복지 제공은 물론 장애인과 미혼모, 이주인 노동자 등 사회 소외계층 전부를 아

납 자비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우선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110개 위탁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위탁기관의 투명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으뜸이라는 이미지를 주도록 재단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오 스님은 1980년 합천 해인사로 출가했다. 자운 스님을 계사로 1981년 통도사와 1984년 해인사에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봉암사와 수도암 등에서 25년거를 성만했고 조계종 중정 예경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교양사 흥국사 주지, 자원봉사 모임 사단법인 천수천안 이사장, 중앙종회 의원직에 재임 중이다.

조동섭 기자

외국인 국제문화교류축제 열려



2월 6-8일,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린 '외국인과 함께하는 국제문화교류축제'가 열렸다. 유네스코가 주최하고 웰빙아시아(대표 박수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시아문화교류센터와 광주보은사, 미륵사, 원각사, 광주과학기술원 등에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재암 불교대학 입학식



소요산 자재암 불교대학(학장 범해)은 2월2일 동두천시내 자재암 포교원에서 제7기 입학식을 거행했다. 자재암 신도와 졸업생들이 참석한 이날 입학식에서 범해스님은 “새롭게 맞이하는 학인들이 열심히 닦아심던 불자여 거듭나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전북지사장

충북불교대학 졸업식



용화사 부설 충북불교대학(학장 각연)은 2월 13일 제13기 졸업식을 봉행하고 10명의 졸업생 대표 임홍근씨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각연 스님은 “수행과 전법, 회향할 자기화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학생회장 이석재씨는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10년 동안 불교대학을 수강한 홍도씨에게 특별상을 수여 받았다.
해철 충청지사장

어르신들을 위한 효 노래잔치



경도재활요양병원 이사장이윤환은 1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가수분과위원회 예천문화(회장 황윤식) 주최로 어르신들을 위한 효 노래잔치를 개최했다. 어르신 100여명은 예천문화 소속 가수인 황윤식, 황재찬, 인준모씨의 흥겨운 노래 공연과 불자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으로 잠시이지만 몸과 마음을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박영애 영주지사장

위안부 자들이 할머니 별세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원장 원행)에서 기거하던 자들이 할머니가 2월 6일 오후 5시 경기 양평 효병원에서 타계했다. 향년 86세.

자 할머니는 경북 경주 출생으로 1945년 방적공장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중국 흑룡강성 동명현 석문자 위안소에서 23세에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 해방이 되어도 귀국하지 못한 채 중국에 남아있던 자 할머니는 나눔의집에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찾던 중 1997년 생존이 확인돼 일시적으로 귀국했다. 2000년 6월에는 영구 귀국, 나눔의집에 머물러왔다. 발인은 2월 8일 효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장지는 광주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마련됐다.

한편 나눔의집은 3월 1일 오전 10시 '나눔의집/일본군위안부사관'에서 31절 행사 및 '해 자들이 할머니 추모제'를 거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진신발기, 2부 자들이 할머니 추모제, 3부 평화와 나눔의 나무심기 등으로 진행된다.(031)774-4461 김강진 기자

인사

불교TV 보도국장에게 대대용씨
불교TV는 2월 11일 신임 보도국장에게 대대용씨(前 만불신문 편집국장)를 임명했다. 대대용 국장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불교신문 편집국 차장, 만불신문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소림사 불교 정신 한국에 널리 보급”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덕산 총무원장



습니다.

“한국에선 처음으로 지난 1일 중국 소림사 방장 스승신(釋永信) 스님에게 16명의 종단 스님들이 수계를 받고 돌아와 종단 이념도 소림선종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소림사에서 선을 주창하신 달마선사의 선종진과 정신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덕산 총무원장은 제 2의 창종 정신으로 소림사의 정신과 문화를 한국에 대중화시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에 덕산 원장 스님은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승신 방장을 비롯해 소림사 무술 시범단 등 30여명을 한국으로 초청, 19일 신촌 봉원사에서 영산재 공연 관람과 소림사 무술 시범 공연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승산 소림사는 달마대사가 불교의 근원이 참선을 통한 깨달음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9년 동안 토굴에서 면벽수도를 통해 많은 불제자의 신앙을 얻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수년간

달마대사의 향훈을 느끼기 위해 소림사를 드나들며 수행하던 중 방장 스님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고 간청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 하셨습니다.”

덕산 원장 스님이 이번 소림사 방장 스님을 초청한 것은 수계에 대한 보답 차원도 있었지만 스승의 사찰인 소림사 스님들에게 한국 불교문화를 각인시켜 주자는 취지가 컸다. 또한 2월22일 서울 인사동에 개원 예정인 소림문화원 한국본부도 소림사 스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덕산 원장 스님은 올 3월부터 소림불교문화원에서 소림무술과 기공, 참선 등을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5월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안잔치와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제도 마련한다.
김주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부설 운문유치원 개원 및 입학식

모시는 글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청정도량 운문사에서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운문유치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운문유치원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아름다운 마음씨와

지혜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정화할 꽃눈들이 모이는 귀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씨가 되도록 뜻을 세운 자리에 초대합니다.

2008년 2월 20일

운문사회주명성 합장
운문유치원 원장 안무영



일시 : 2008년 3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운문유치원(경산시)
전화 : 053)802-2525

찾아오는길

Map showing the location of Yunmun Youth Center in Gyeongsan, with landmarks like Ssanggye University and various bus lines.

운문사부설 운문유치원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655-2번지 (버스노선 100, 200-1, 399)

